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여주(鄭瑀澍)*

김한별(金韓別)**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행동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에 기초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이후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에는 272명, 본조사에는 1,10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예비조사 문항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사이버폭력 경험척도가 활용되었다.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54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문항,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5문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5문항, 회피행동 5문항,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6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25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최종문항을 대상으로 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64로 나타났으며,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와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의 하위 구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척도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인타당도 역시 NFI, TLI, CFI, RMSEA가 .918, .912, .928, .076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개발

I. 서론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1만9천968건으로 2012년 대비 19.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 1천462건으로 3년만에 1.6배 증가했다(연합뉴

* 제 1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부교수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스, 16.10.22). 이는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동, 청소년에게 확대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우울감, 분노,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 자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물질 사용과 폭력적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등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yram, Yüksel, Adem, Sirri, & Sevim, 2012; Brett & Bonnie, 2015). 특히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달리 알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Ybarra & Mitchell, 2004). 이로 인해, 사이버폭력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폭되는 특성을 가진다(Bryce & Klang, 2009).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스마트 기술의 발달을 사회적 규범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적 아노미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중요한 청소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신동준, 이명진, 2006).

그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연구도 점점 확대되어 나가고, 사이버폭력을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개발된 사이버폭력 측정도구들은 대부분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가해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척도에만 그치고 있다(정여주, 김민지, 김빛나, 전은희, 고경희, 2016;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 2016). 기존 척도의 문항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다’의 기술은 사이버폭력 피해 문항으로, ‘내가 그것을 했다’의 기술은 사이버폭력 가해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다(Baren & Li, 2005; Topcu & Erdur-Baker, 2010). 하지만 단순히 피해, 가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학교 및 상담현장에서 상담개입 및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 정여주, 김빛나, 김민지, 고경희, 전은희(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지, 정서 영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물은 기존에 몇 편 진행되어 있는데 비해(정여주, 김동일, 2012; Strom & Strom, 2005; Bannink, Broeren, van de Looij-Jansen, de Waart, & Raat, 2014), 행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의 결과를 살펴보고 상담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사실을 지각하는 사고과정과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그래서 결국 청소년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따라 피해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 우울과 불안이 높지만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대처를 함으로써 피해에 따른 충격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에 따른 행동과 관련된 국내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단편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확인

하는 것만으로는 추후의 치료적 개입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양상을 피해자의 인지, 정서, 행동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피해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행동반응 척도의 개발은 사이버 사이버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의 행동반응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주고,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

사이버폭력은 그동안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Ybarra와 Mitchell(2004)는 사이버폭력을 ‘인터넷 모욕(Internet Harass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명시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설명하였고, Willard(2007)는 인터넷이나 디지털기술을 사용하여 해로운 자료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고 사회적으로 공격 행동을 하는 것과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사이버 위협(cyberthreat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Hinduja와 Patchin(2008)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정의 내렸는데 이는 고의성과 반복성이라는 가해자의 악의성에 주목한 설명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2006)은 사이버폭력을 컴퓨터를 매개로 한 폭력행위로 한정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정완(2005)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명예훼손 또는 공개적 망신과 같은 사이버상 공격의 특징을 정의에 반영하였다. 조아라와 이정윤(2010)은 악성댓글에 초점을 두고 댓글의 형태로 가해지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사이버폭력의 주된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른 구분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 있다. 공간에 따른 유형은 문자메시지, 블로그, 이메일, 채팅방, 게시판, 웹사이트와 같은 채널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Wolak et al., 2007; Smith, Mahdavi, Carvalho, Fisher, Russell, & Tippett, 2008, Huang & Chou, 2010). 내용에 따른 유형은 단순히 언어폭력과 사진을 사용한 폭력으로 구분하기도 하고(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박종현, 권도윤, 서경원, 2005; 김대권, 2006)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지영(2008)의 정의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지영(2008)이 제시한 것처럼 사이버폭력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등에서 상대방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격모독, 성희롱 등의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결과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주중 게임사용시간과 폭력적인 TV시청 시간이 길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신나민, 안화실, 2013), 친구한 사람끼리 가벼운 일상을 공유하는 매체인 연속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이창호, 이경상, 2013). 이는 가해자들이 일반적으로 TV, 컴퓨터, 핸드폰 등 디지털 가상 세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았는데(김종길, 2013) 이는 청소년이 실제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 사건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수록 사이버 공간에 공격적으로 투사하기 쉬움을 시사한다. 더불어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댓글을 작성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정여주 등, 2015),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여러 환경적, 개인내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특히 부모 및 친구, 학교변인이 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종욱(2001)은 사이버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와의 친밀도·감독정도·가정화목도가 현저히 낮다고 하였으며, 남상인, 권남인(2013)은 부모욕설과 폭력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이지연, 박동필(2015)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을 하기 쉽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이버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고, 담임 선생님이 자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았다(한종욱, 2011). 폭력피해 경험 역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친구와 관계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이 사이버상에서 적용되어 위험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김경은, 2013).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겪게 된다(정여주 등, 2015). 먼저 정서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짜증이 많고 화가 나며 당황할 때가 많으며

(정여주, 김동일, 2012). 평소보다 우울감, 외로움, 불안, 좌절감,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끼기 쉽다(두경희, 정여주, 2016; Bayram et al., 2012). 또한, 인지적으로 자책, 관계에 있어서의 걱정, 타인의 시선 의식, 불신,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두경희, 2013). 사이버 상에서의 무시와 따돌림은 통제력을 잃게 만들며 소속감을 잃도록 만든다(Williams, Cheung & Choi, 2000). 저하된 자기조절력은 외현화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을 계속 양산해가기도 하고(정여주, 김동일, 2012), 그에 따른 비행행동의 증가와도 연관된다(전은숙, 2013; 조운오, 2013).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자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물질 사용과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주형, 2013; Hay, Meldrum, & Mann, 2010).

3. 기존의 사이버폭력척도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행동반응을 측정하고자하는 시도들은 여러 국외연구들에서 실시된 바 있다. Li(2006)는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인식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의 당한 적이 있는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나 자주 피해를 경험했는지를 묻는 문항과 더불어 사이버폭력을 당하였을 때 주변에게 알릴 것인지, 나름대로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Aricak 등(2008) 역시 사이버폭력 가해, 피해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과 함께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해결전략에 대한 질문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전반적으로 대처전략에 대해 묻는 문항 수가 3~4개로 적고 진위형 문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빈도분석하는 것에 그쳐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후 Riebel, Jäger와 Fischer(2009)는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 “이메일 계정을 바꾸고 닉네임을 바꾼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기술적 대응과 “똑같이 모욕감을 주었다”,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 위협하였다”가 포함된 공격적 대응, “뭘 해야할지 몰랐다”, “그냥 울었다”의 문항으로 구성된 무기력한 대응,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왜 그러는지 궁금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인지적 대응을 포함시킨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는 사이버폭력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적 특성들을 비교적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사고과정 및 인식의 특성에 관한 문항을 하나의 하위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Jacobs, Völlink, Dehue와 Lechner(2015)는 사이버폭력의 부정적인 효과와 그 지속력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대응전략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사이버폭력대응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

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이버폭력 대응 전략들을 측정하고 있다.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신적 대응(mental coping)’, ‘수동적 대응(passive coping)’, ‘사회적 대응(social coping)’, ‘직면적 대응(confrontational coping)’의 4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척도 역시 사이버폭력의 대응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인 행동영역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행동반응의 방식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동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송종규(2005)가 사이버폭력 실태분석을 하며 사이버폭력 피해 또는 가해 후의 느낌, 사이버폭력 피해 후에 도움을 받은 사실 여부, 도움을 받은 사람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두경희(2013)는 대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자신에 대한 대처, 가해자에 대한 대처, 주변사람에 대한 대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반응을 측정하고 유목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지적인 반응패턴에 주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기존의 사이버폭력 척도를 검토해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따른 행동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고 주로 피해 또는 가해 사실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의 검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용된 척도들이 명확히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많다. 제한적이거나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의 반응을 묻는 검사들이 국외에서 개발되었으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대처전략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고 각 영역별로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패턴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보이는 행동반응들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예비조사 참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행동반응 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심층면접(Focus Individual Interview)과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총 55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를 충청, 경상, 부산, 대구, 광주 지역 교사들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보냈으며, 청소년 본인이 설문 응답을 원치 않는 경우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2명의 설문

이 예비조사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성별, 학교급별, 학년별 분포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예비조사 참여 대상

| 기준 | 구분 | 인원수(%) |
|-----|--------------|-----------|
| 성별 | 남 | 196(72.1) |
| | 여 | 76(27.9) |
| 지역 | 충청 | 28(10.3) |
| | 경상 | 25(9.2) |
| | 부산 | 96(35.3) |
| | 대구 | 90(33.1) |
| | 광주 | 33(12.1) |
| 학교급 | 초등학교(5, 6학년) | 86(31.6) |
| | 중학교(1~3학년) | 96(35.3) |
| | 고등학교(1, 2학년) | 90(33.1) |

2) 본조사 참여 대상

본조사는 2015년 11월에 실시되었으며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 학급별, 연령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폭력 행동반응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2> 본조사 참여 대상

| 기준 | 구분 | 인원수(%) |
|-----|--------------|-----------|
| 성별 | 남 | 569(51.5) |
| | 여 | 536(48.5) |
| 지역 | 서울 | 308(27.9) |
| | 경기 | 249(22.5) |
| | 충청 | 167(15.1) |
| | 전라 | 158(14.3) |
| | 경상 | 223(20.2) |
| 학교급 | 초등학교(5, 6학년) | 339(30.7) |
| | 중학교(1~3학년) | 348(31.5) |
| | 고등학교(1, 2학년) | 418(37.8) |

2. 연구도구

1)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예비조사 문항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개별심층면접(Focus Individual Interview, FII)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9명을 선정하여 FII를 실시하였다. FII를 실시한 이유는 사이버폭력피해 당사자들로부터 행동반응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참여한 청소년은 14세~19세(평균 15.8세)였으며, 남자 4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 구성은 반구조화 질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이버상에서 어떤 폭력 경험을 했는지,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했던 행동 중에서 자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을 무엇인지, 도움이 되었던 행동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면담을 통해 나타난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행동반응에는 “무시한다던가 채팅을 보지 않는다던가”와 같은 회피행동, “그 친구말고 다른 친한 친구에게 상황을 말했어요”와 같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 “실제 만나서 싸우자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와 같이 보복하는 행동, “키보드를 엄청 세게 막 손으로 이려고 내리쳐가지고”와 같이 화풀이 하는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정여주, 김동일(2012), Strom과 Strom(2005); Bannink 등(2014), 정여주 등(2015)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문항을 제작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항들에는 “사이버 폭력을 당한 후 다른 이슈 글을 올려 이 글을 문히게 한적이 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후 해명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후 친구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을 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후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후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등이 있다.

그 다음,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여 온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 상담전공 석사과정 2인이 각 문항이 구인을 잘 드러내는 지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2)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Griezel, Finger, Bodkin-Andrews, Craven, & Yeung, 2012)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이 13개, 피해경험을 측정

하는 문항이 13개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가 기분 나빠할 만한 것을 페이스북이나 카톡 프로필 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휴대폰으로 친구가 당황스러워할 만한 사진을 찍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거의 그런 적 없다’, 2는 ‘한 번 그런 적 있다’, 3은 ‘몇 번 그런 적 있다’, 4는 ‘종종 그런 적 있다’, 5는 ‘자주 그런 적 있다’, 6은 ‘매일 그런 적 있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 내 문항내적합치도는 .948이었다.

3)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본조사에서는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김병관, 전호정(2016)이 개발한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행동반응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는 6개 하위구인(현저성, 충동강박, 금단, 내성, 문제, 대인간갈등), 각 구인별 5문항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폰이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서 손목이 아프다”, “데이터한도 초과로 부모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자주 혼이 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지 않다’, 3은 ‘그렇다’,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문항내적합치도는 .940였다.

4)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 조영미, 2008)를 함께 실시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이었다.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더 많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지 않다’, 3은 ‘그렇다’, 4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문항내적합치도는 .909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문항 개발

우선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 사이버 경험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II를 실시하여 예비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로 완성된 예비 문항에 대해 상담분야 전공 교수 1인, 상담전공 박사과정 2인, 상담전공 석사과정 2인의 평정 과정을 통해 문항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예비 조사 55문항을 선정하였다.

2)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추출한 문항을 바탕으로 예비조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전문 설문 기관에 의뢰하여 사이버폭력 행동반응 척도 예비문항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22.0을 활용하여 배리맥스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문항, 주변사람에게 도움 요청 5문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5문항, 회피 행동 5문항,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5개의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3) 본조사 실시 및 분석

예비조사 결과 선정된 최종 문항과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제작한 뒤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각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검증 위해 AMOS 22.0를 활용하여 측정모형인 5요인 2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예비조사 결과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최종 예비조사 문항 89개 문항 중 평균값 1.5이하를 나타내는 35개 문항은 낮은 응답을 보여 삭제하고 54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삭제된 문항의 예는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한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한 적이 있다”,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인터넷에 사과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서 올린 적이 있다”와 같다. 최대우도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4문항,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5문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5문항, 회피행동 5문항,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택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선정된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하위구인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
| 초기 고유값 | 합계 32.920 | 2.582 | 1.888 | 1.543 | 1.432 |
| %분산 | 60.964 | 4.782 | 3.497 | 2.857 | 2.653 |
| %누적 | 60.964 | 65.746 | 69.243 | 72.100 | 74.752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831 | .224 | .178 | .182 | .168 |
| | .818 | .116 | .265 | .259 | .154 |
| | .642 | .185 | .159 | .146 | .162 |
| | .522 | .504 | .126 | .340 | .381 |
|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 .326 | .690 | .365 | .250 | .243 |
| | .272 | .688 | .371 | .236 | .302 |
| | .231 | .645 | .444 | .223 | .328 |
| | .337 | .613 | .378 | .167 | .356 |
| | .326 | .588 | .234 | .377 | .290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270 | .249 | .808 | .178 | .124 |
| | .287 | .205 | .782 | .268 | .133 |
| | .099 | .298 | .649 | .262 | .350 |
| | .366 | .281 | .626 | .144 | .199 |
| | .243 | .467 | .577 | .220 | .134 |
| 회피행동 | .276 | .329 | .251 | .611 | .127 |
| | .378 | .197 | .224 | .598 | .241 |
| | .108 | .080 | .476 | .531 | .197 |
| | .158 | .138 | .367 | .513 | .319 |
| | .354 | .387 | .160 | .479 | .370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249 | .429 | .383 | .224 | .681 |
| | .310 | .378 | .349 | .236 | .580 |
| | .361 | .408 | .381 | .256 | .551 |
| | .370 | .248 | .512 | .190 | .515 |
| | .309 | .368 | .451 | .160 | .474 |
| | .310 | .223 | .273 | .378 | .402 |

2. 본조사 결과

1) 신뢰도 분석

최종 선택된 25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964이었으며, 각 하위 구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889,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933,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932, 회피행동 .923,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953로 나타났다.

2) 준거타당도 분석

준거타당도 분석을 위해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하위구인과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와의 상관점수는 .238~.3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와의 상관점수 역시 .221~.312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의 하위 구인인 가해척도와 피해척도의 시각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과의 상관점수가 .233~.349 사이의 값을 보여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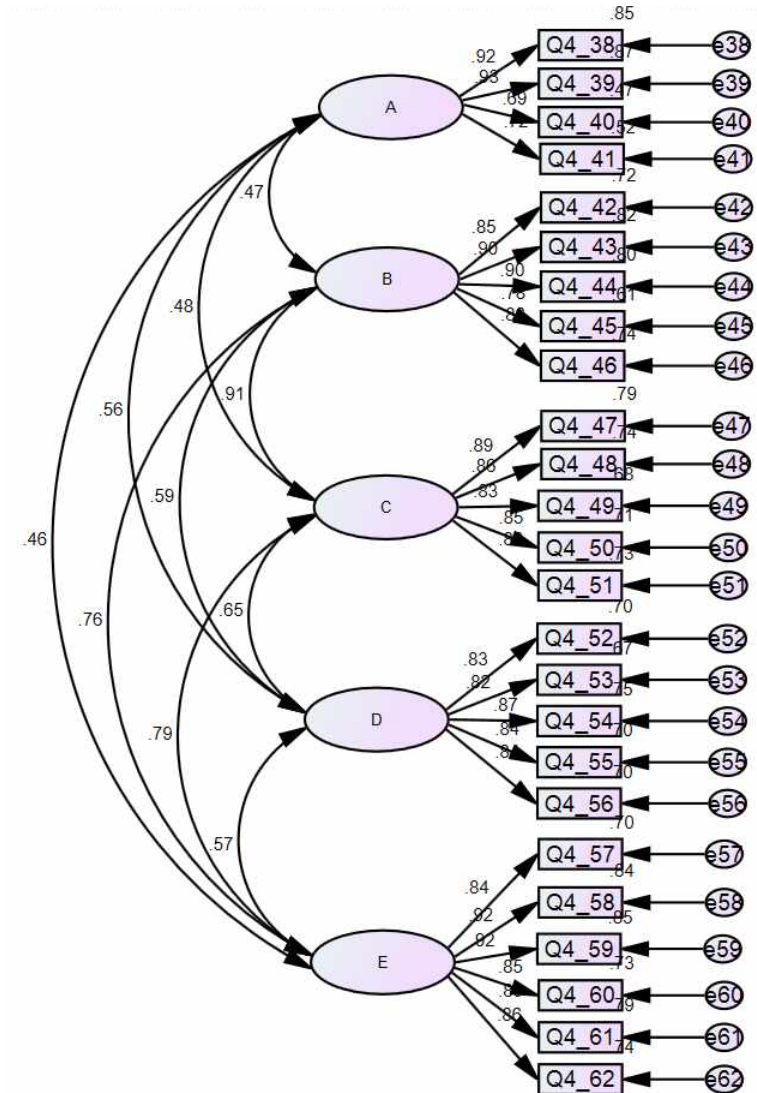
<표 4> 사이버폭력 행동 척도와 준거척도 간 상관

| | | 사이버폭력 행동 척도 | | | | |
|-----------------------|------------|----------------------|---------------|-----------------|--------|---------------|
|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주변사람의 도움요청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회피행동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 | .349** | .277** | .253** | .238** | .292** |
| 스마트미디어 중독 척도 | | .312** | .293** | .265** | .221** | .298** |
| 사이버 폭력 경험 척도 | 가해_시각적 괴롭힘 | .306** | .262** | .238** | .233** | .311** |
| | 가해_언어적 괴롭힘 | .318** | .294** | .294** | .243** | .316** |
| | 피해_시각적 괴롭힘 | .287** | .277** | .270** | .217** | .294** |
| | 피해_언어적 괴롭힘 | .337** | .340** | .349** | .296** | .328** |

** $p < 0.01$

3)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AMOS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NFI, TLI, CFI, RMSEA가 .918, .912, .928, .076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 모든 문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R. 계수도 모두 2.58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문항은 표 6과 같다.



A: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B: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C: 관계강화와 적극적 대응, D: 회피행동, E: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5> 구인타당도 회귀계수

| | | 비표준화 회귀계수 | 표준화 회귀계수 | S.E. | C.R. | P |
|-------|------------------|--------------|-------------|------|--------|-----|
| Q4_38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1.000 | .923 | | | |
| Q4_39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1.039 | .931 | .023 | 45.656 | *** |
| Q4_40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710 | .688 | .027 | 25.971 | *** |
| Q4_41 |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704 | .721 | .025 | 28.059 | *** |
| Q4_42 | ← 주변사람 도움요청 | 1.000 | .851 | | | |
| Q4_43 | ← 주변사람 도움요청 | 1.048 | .905 | .028 | 38.031 | *** |
| Q4_44 | ← 주변사람 도움요청 | 1.058 | .896 | .028 | 37.315 | *** |
| Q4_45 | ← 주변사람 도움요청 | .805 | .781 | .027 | 29.421 | *** |
| Q4_46 | ← 주변사람 도움요청 | 1.059 | .861 | .031 | 34.612 | *** |
| Q4_47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1.000 | .888 | | | |
| Q4_48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948 | .857 | .025 | 37.182 | *** |
| Q4_49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958 | .827 | .028 | 34.579 | *** |
| Q4_50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922 | .846 | .026 | 36.112 | *** |
| Q4_51 |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994 | .857 | .027 | 37.101 | *** |
| Q4_52 | ← 회피행동 | 1.000 | .834 | | | |
| Q4_53 | ← 회피행동 | .974 | .821 | .032 | 30.174 | *** |
| Q4_54 | ← 회피행동 | .969 | .867 | .029 | 32.848 | *** |
| Q4_55 | ← 회피행동 | .877 | .838 | .028 | 31.179 | *** |
| Q4_56 | ← 회피행동 | .900 | .839 | .029 | 31.193 | *** |
| Q4_57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000 | .839 | | | |
| Q4_58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087 | .919 | .028 | 38.263 | *** |
| Q4_59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126 | .923 | .029 | 38.550 | *** |
| Q4_60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127 | .852 | .034 | 33.427 | *** |
| Q4_61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153 | .887 | .032 | 35.830 | *** |
| Q4_62 | ←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 1.052 | .861 | .031 | 33.990 | *** |

*** $p < 0.01$

<표 6> 사이버폭력 행동반응척도 최종문항

| | | |
|----|--|-------------------------|
| 1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같이 욕을 했다. | |
| 2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에게 욕을 해서 맞받아 친 적이 있다. |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
| 3 |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을 사용해 피해를 준 적이 있다. | |
| 4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친구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을 했다. | |
| 5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직접 사실에 대해 설명한다. | |
| 6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
| 7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서적 위로를 받기를 바란 적이 있다. | |
| 8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지인에게 해명 글을 부탁한 적이 있다. | |
| 9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다른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 했다. | |
| 10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
| 11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
| 12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글을 쓴 친구와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한 적이 있다. | |
| 13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친구들에게 평소 나의 평판이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 |
| 14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내편을 확인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 했다. | |
| 15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했다. | |
| 16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채팅창을 무시했다. | |
| 17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낸다. | 회피 |
| 18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 |
| 19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 | |
| 20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글을 쓴 친구를 찾아가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다. | |
| 21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해명 글을 쓰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 |
| 22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정정하는 글을 올릴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 가해자에게 해명 요구 |
| 23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 24 |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원본 글을 내리게 한 적이 있다. | |
| 25 |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FII와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25문항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과 최종 구인을 확정하고, 최종 검사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회피행동, 가해자에게 해명요구라는 5가지 하위구인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는 기존 Riebel 등(2009)의 척도에서 사회적 대응과 내적(인지적) 대응으로 구분한 부분 중 사회적 대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개인차원에서의 대응,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척도와 맥락을 함께 하면서 더 구체적인 행동반응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하위척도 중 회피행동은 Jacobs 등(2015)의 척도 중 수동적 대응의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은 사회적 대응, 가해자에게 해명요구는 직면적 대응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척도들이 인지, 정서, 행동적 대응을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살펴본 데 반해, 본 척도는 행동반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행동반응을 훨씬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살펴보면, 가해자에게 함께 욕을 하거나 사이버폭력을 함께 가하면서 피해자인 자신도 또 다른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Riebel 등(2009)의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상대에게 똑같이 모욕감을 주었다고 응답한 것이나,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 위협하였다고 응답한 것과 비슷하며, 정여주, 김동일(2012)의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20% 이상이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자신도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이런 현상이 사이버폭력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회피행동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회피행동에는 그냥 무시하고 참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 피해 후 이것을 참고 누르는 행동은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아픔을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리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도록 할 위험이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들(김은영, 이지은; 2015, 나빛나, 장성숙, 2016; 전선

영, 김은정, 2013), 회피가 사회적 불안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들(유성진, 권석만, 2013; 김동현, 이장한, 2013)을 살펴볼 때, 이러한 청소년들의 회피행동은 우울, 불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PTSD의 일반적 특징은 회피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경험한 끔찍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Nevid, Rathus, & Greene, 2016) 것을 살펴볼 때, 이러한 회피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상담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의 최종문항은 25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척도 및 각 하위 구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전체 척도 .964,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889, 주변사람에게 도움요청 .933,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932, 회피행동 .923, 가해자에게 해명요구 .953이었다. 이 수치를 기존의 사이버폭력 척도와 비교해보면, Ybarra & Mitchell(2004)의 척도가 .790, 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발된 국내 사이버폭력 피해 척도인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2016)의 척도에서는 전체 척도가 .931, 하위구인별로는 언어폭력 .938, 명예훼손 .844, 플레이밍 .879, 따돌림 .79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본 척도의 신뢰도는 국내 척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의 상관점수를 확인하여 준거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와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와의 상관점수는 .217~.337의 상관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가 기존에 해외에서 개발된 Griezel 등(2012)의 사이버폭력 경험 척도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그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민음, 금현수, 정은정, 김효은, 이정기(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폭력 및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와 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행동반응 척도와의 상관점수를 살펴본 결과, .292에서 .3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여, 기존 연구에서 설명한 내용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가지 하위구인과 25개 문항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NFI, TLI, CFI, RMSEA가 .918, .912, .928, .076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C.R. 계수도 모두 2.58 이상으로 나타나 구인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GFI, NFI, CFI, TLI가 .90이상이고, RMSEA는 .08이하면 적합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 개발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척도는 여러개 존재했으나, 직접적으로 행동반응을 구체화하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척도는 인지, 정서적 문제와 구분하여 사이버폭력

으로 인한 직접적인 행동반응 양식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사이버폭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이버폭력 행동반응 양식에 따른 문제 현상을 분석하거나, 애착유형, 트라우마 경험, 지지자들의 수용 정도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 후 행동방식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후 보일 수 있는 행동반응 양식을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 주변 사람에게 도움요청,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 회피행동, 가해자에게 해명요구의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후 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이는 추후 연구자들이 사이버폭력 피해 후 행동반응의 연령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거나, 행동반응에 따른 문제의 심화정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본 척도에서 개발한 사이버폭력 피해 행동반응 척도는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보이는 행동반응 양식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도록 도와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한 경우나 가해자에게 해명요구를 한 경우와 회피행동을 한 경우의 청소년들이 어떤 성격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상담적 전략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계강화와 적극적 해결을 한 청소년들이 그 후에 감정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갔는지를 살펴본다면 다른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척도를 활용한다면 상담 프로그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가해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회피행동을 하면서 혼자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간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개발하거나, 서로가 했던 행동들을 나누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지를 나누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폭력 후 행동양식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지 아닐지를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급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적용한 척도 기준 점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급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확인적요인분석 모형이 다른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지역변인별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전체 대상을 배경으로 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특성이나, 다른 학생배경을 추가 조사하여 그 변인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행동반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를 세분화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인지적 변화나 정서적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척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를 함께 사용할 때 청소년들에게 좀더 다각도 접근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은(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133-159.
- 김대권(2006).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인터넷을 사용하는 20대 남·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2), 145-174.
-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2014). 청소년 스마트폰 건전 사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청소년상담연구**, 22(1), 393-421.
-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김병관, 전호정(201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3), 319-335.
- 김동현, 이장한(2013). 정서몸짓에 대한 사회불안자의 경계-회피 반응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397-411.
- 김은영, 이지은(2015).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345-358.
- 김종길(2013).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9(1), 47-68.
- 나빛나, 장성숙(2016). 고등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우울 관계에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8(1), 1-23.
- 남상인, 권남인(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2), 23-43.
- 두경희(2013).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2012). 사이버 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4), 1581-1607.
- 두경희, 정여주(2016).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에서 부정적 경험을 유발시키거나 경감시키는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4(1), 199-225.
- 박종현, 권도윤, 서경원(2005).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향. **정보통신윤리**, 11, 10-15.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 79-129.
- 송종규(2005).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과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신나민, 안화실(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 연구**, (49), 1-21.
- 신동준, 이명진(2006).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0, 149-195.
- 유성진, 권석만(2013). 위협회피 기질과 불안증상의 관계에서 체험회피 시도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217-241.
- 전선영, 김은정(2013). 대학생의 반추 하위유형들(몰두와 반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 회피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285-306.
- 전은숙(2013).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정여주, 김동일(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367-386.
- 정여주, 김민지, 김빛나, 전은희, 고경희(2016). 사이버폭력 연구 동향과 과제: 사이버폭력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1), 1-23.
- 정여주, 김빛나, 김민지, 고경희, 전은희(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0, 49-66.
- 정여주, 김한별, 전아영(2016). 사이버폭력 피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24(3), 95-116.
- 정완(2005).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329-359.
- 조아라, 이정윤(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17-131.
- 조운오(2013).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117-142.
- 연합뉴스(2016.10.22.). '떼카' '방폭'에 신음하는 아이들. **의무교육은 연 1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61021066400065>.
- 이주형(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 미국의 법적 대응의 특징과 법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1(1), 133-157.
- 이지연, 박동필(2015). 부모의 과보호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55-76.
- 이창호, 이경상(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최민음, 금현수, 정은정, 김효은, 이정기 (2012).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간접적·공적, 직접적·사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375-402.

- 한종욱(2001). 청소년 사이버비행자의 사회유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1), 357-384.
- 황지영(2008). 인터넷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설명요인에 관한 경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Li, Q. (2006).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2), 157-170.
- Aricak, T., Siyahhan, S., Uzunhasanoglu, A., Saribeyoglu, S., Ciplak, S., Yilmaz, N., & Memmedov, C. (2008). Cyberbullying among Turkish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3), 253-261.
- Bannink, R., Broeren, S., van de Looij-Jansen, P. M., de Waart, F. G., & Raat, H. (2014).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victimization as a risk factor for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PLoSone*, 9(4), e94026.
- Baren, T., & Li, Q. (2005). Cyber-harassment: a study of a new method for an old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32(3), 265-277
- Bayram, C., Yüksel, E., Adem, P., Sirri A., & Sevim, P. (2012). The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among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 construal cyber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harmony in adolesc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2(2), 646-653.
- Brett, H., & Bonnie, J. L., (2015). The nature and frequency of cyber bullying behaviors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young canadian children.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0(2), 116-135.
- Bryce, J., & Klang, M. (2009). Young peopl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nline privacy: Control, choice and consequences. *Information Security Technical Report*, 14(3), 160-166.
- Griezel, L., Finger, L.R., Bodkin-Andrews, G.H., Craven, R.G., Yeung, A.S. (2012). Uncovering the structure of and gender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yber bully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5(6), 442-455
- Hay, C., Meldrum, R., & Mann, K. (2010). Traditional bullying, cyber bullying, and deviance: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30-147.
- Huang, Y., & Chou, C.(2010). An analysis of multiple factors of cyberbullying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aiwa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1581-1590.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Jacobs, N. C., Völlink, T., Dehue, F., & Lechner, L. (2015). The Development of a self-report questionnaire on coping with cyberbullying: The cyberbullying coping questionnaire. *Societies, 5*(2), 460-491.
- Law, D. M., Shapka, J. D., Hymel, S., Olson, B. F., & Waterhouse, T. (2012). The changing face of bullying: An empirical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and internet bullying and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226-232.
- Li, Q. (2006).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2), 157-170.
- Nevid, J. S., Rathus, S. A., & Greene, B. (2014). *Abnormal psychology in changing world 9/E*. NY: Pearson Education.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trom, P. S., & Strom, R. D.(2005). Cyberbullying by adolescents: A preliminary assessment. *Educational Forum, 70*(1), 21-36.
- Topcu, C., & Erdur-Baker, Ö. (2010). The revised cyber bullying inventory (RCBI):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ie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660-664.
- Riebel, J. R. S. J., Jaeger, R. S., & Fischer, U. C. (2009). Cyberbullying in Germany—an exploration of prevalence, overlapping with real life bullying and coping strategies. *Psychology Science Quarterly, 51*(3), 298-314.
- Willard, N. (2007). *Educator's guide to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Center for safe and responsible use of the Internet. Retrieved October 10, 2011, from <http://www.cyberbully.org/docs.cbctparents.pdf>.
- Williams, K. D., Cheung, C. K. T.,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Wolak, J.,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51-58.
- Ybarra, M. L., & Mitchell, K. J.(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308- 1316.

- * 논문접수 2016년 11월 3일 / 1차 심사 2016년 12월 9일 / 2차 심사 2017년 3월 2일 / 게재승인 2017년 3월 10일
- * 정여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이버폭력,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등이다.
- * E-mail: peaceinj@knue.ac.kr
- * 김한별: 한국교원대학교 상담 및 특수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 * E-mail: onestar371@naver.com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yberbullied Adolescents Behavioral Response Scale

Chung, Yeo-ju*

Kim, Han-by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cyberbullied Adolescents behavioral response.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FII(Focus Individual Interview). Then, Survey was perform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72 preliminary survey subjects and 1,105 main survey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scales for this study were preliminary survey items, Smart Media Addiction scale,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Cyberbullying Experience scale.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selected 54 items, total 25 items(aggressive response to cyberbully 4 items, asking help to others 5 items, strengthening relationship and resolution 5 items, avoidance 5 items, asking elucidation to perpetrator 6 items) were chosen. The results for main survey was that high reliability (Cronbach's $\alpha = .964$) was confirmed, and support for the scale's criterion validity has been demonstrated by relationship to the Smart Media Addiction scale, Internet addiction scale, and Cyberbullying Experience scale. The results of construct validation showed five-factor structure to be valid, and demonstrated correlations among the subscales(NFI=.918, TLI=.912, CFI=.928, RMSEA=.076).

Key words: Adolescents cyberbullying, behavioral response, scale development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Counseling Psych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Counseling Psych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